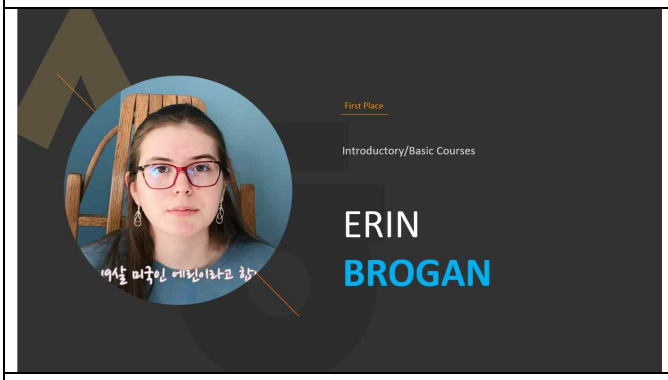
[제2020-37호]

한국문화원 Korean Cultural Center, Los Angeles	보 도 자 료	사람이 있는 문화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6쪽
배포일시	2020.10.19(월)	담당부서 LA한국문화원 세종학당
연락처	323-936-3025/seung822@kccla.org	담 당 자 노승환

LA한국문화원, '2020 온라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 수상자 발표

온라인 시상식 사진자료



초급 부문 최우수상 수상자

중/고급 부문 최우수상 수상자

미 전역에서 224명이 참가한 '2020 온라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성공리에 마무리됐다.

LA한국문화원(원장 박위진)은 미국 거점 세종학당(소장 정은미)과 함께 제574돌 한글날 기념 및 캘리포니아 한글날을 기념하기 위해 '2020 온라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10월 9일(금)까지 비대면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온라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는 캘리포니아는 물론 하와이,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뉴욕 등 미국 각지에서 총 224명(초급레벨 부문: 96명, 중/고급레벨 부문:128명)이 참가했으며, 참가자들은 한국과 한국문화를 주제로 각각 2분 또는 3분 내외의 말하기 동영상을 제출하였다.

이번 대회를 통해 접수된 동영상들은 한국어 교육 전문가들로 구성된 외부 심사위원단을 통해 독창성 및 준비성, 유창성, 정확성, 발음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여 총 62명(초급28명, 중/고급 34명)이 입상자들을 선정하였다.

□ <2020 온라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 (초급부문)> 수상 내역

- 1등 : 에린 브로간(ERIN BROGAN)
- 2등 : 쉘비 고갈(SHELBY GOGAL), 아루나바 찬다 (ARUNAVHA CHANDA)
- 3등 : 케티노 덤바쩨(KETINO DUMBADZE), 세레나 유(SERENA YU), 로렌 림(LAUREN LIM)
- 한국문화상 : 22명

초급레벨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펜실베니아 출신의 에린 브로간(ERIN BROGAN)씨가 세종대

왕의 한글 창제 원리를 논리 정연하게 설명하며 "글씨가 너무 예뻐 매일 매일 한글로 글쓰기 연습을 한다"며 "다른 언어보다 한국어를 너무 좋아한다"고 발표했다.

오하이오 출신의 쉘비 고갈(SHELBY GOGAL)씨는 직접 한국요리를 만드는 것을 좋아해서 한국인 친구를 초대해서 한국 음식을 만들어 주었더니 엄마가 해주는 것보다 더 맛있다고 말해줘서 엄청 뿌듯함을 느꼈고 그 이후 한국요리도 열심히 배우고 한국어도 공부하게 되었다고 발표하여 공동 2등을 수상했다.

공동 3위를 차지한 북가주 버클리 출신 중국계 미국인 로렌 림(LAUREN LIM)씨는 "아이돌이 되는 게 꿈이어서 오디션을 봤지만 한국말을 너무 못해서 떨어져서 지금은 대학에서 한국어 수업을 듣고 있다"며 자기 소개를 했다. "지금 나의 새로운 꿈은 한국 여행을 하면서 찜질방과 노래방에도 가고, 감자탕과 갈비도 먹고 명동에서 샤핑도 하고 한복입고 남산 타워도 가는 것이다"라며, "그래서 지금 한국어를 유창하게 말하기위해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 <2020 온라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 (중/고급부문)> 수상 내역

- 1등 : 이자트 주핼리 아브드 하미드(IZZAT ZUHAILEE ABD HAMID)
- 2등 : 시몬 코스비(SYMONE GOSBY), 앨리슨 갈바즈(ALLISON GARBACZ)
- 3등 : 카밀라 드룩스(KAMILAH DREUX), 마무다 칸(MAHMUDA KHAN), 매기 디건(MAGGIE DEAGON)
- 한국문화상 : 28명

중/고급부문에서는 북가주 출신의 이자트 주핼리 아브드 하미드(IZZAT ZUHAILEE ABD HAMID)씨는 한국에서만 있는 응원봉에 대해 설명하며 1990년대 아이돌 그룹인 신화, 젝스키스 등 부터 현재 세계에서 가장인기 있는 K-pop 그룹인 BTS의 응원 팬덤문화를 간단하면서도 명확하게 잘 설명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중/고급부문에서 공동 2위를 차지한 워싱턴 D.C. 출신의 시몬 코스비(SYMONE GOSBY)씨는 2014년 한국에서 인턴 생활을 할때 경험했던 한국의 예절문화 특히 "타인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고급부문의 공동 3위를 차지한 마무다 칸(MAHMUDA KHAN) 씨는 한국의 서울보다는 지방을 방문하여 다양한 지역 방언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사투리를 자세히 공부하다보면 언어를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사투리는 문화보물이기 때문에 꼭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공동 3위를 수상한 매기 데이곤(Maggie Deagon)씨는 제주의 한 고등학교 영어선생님으로 재직하던 시절 만났던 제자와의 슬프지만 따뜻한 가족 사랑을 통해 한국 어머니들의 강한 정신력과 가족애를 배울 수 있었다고 지난 추억을 되새겼다.

이번 대회의 심사위원들은 "참가자의 나이, 한국어 숙달도, 거주 지역과 상관 없이 모든 참가자들에게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으며, 특히, 중고급 참가자들의 한국어 숙달도가 과거에 비해 굉장히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대회 참가자들의

학교별 배경과 출신 지역면에서도 미국 전체에 걸쳐 광범위하게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서 미국내 한국어 교육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라고 평가했다.

.

이번 대회 입상자들에게는 한국의 문화체육관광부의 특별지원으로 삼성 노트북, 삼성 갤럭시 태블렛, 아마존 E-gift 카드 등 다양한 상품이 수여될 예정이다.

박위진 LA한국문화원장은 "코로나 팬데믹 속의 짧은 대회기간에도 불구하고 미 전역에서 224명의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 참가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이는 미국내에서 한국어 배우기 열풍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라며, "한국어의 아름다움과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데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사랑하는 미 현지인들의 다양한 말하기 영상은 편집을 통해 LA한국문화원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 등에 추후 게재될 예정이다. /끝/

2020 온라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

1. 추진 일정: 9.14.(월) ~ 10.16.(금)

가. 접수 기간 : 9.14(월) ~ 10.9(금) ※ Pacific Time (PT) 기준

나. 심사 : 10.13(화) ~ 10.14(수), 입상자 발표 : 10.15(목) ※ 홈페이지 발표

다. 온라인 시상식: 10.16(금) 18:00

2. 참가 대상

가. (접수 당일 기준) 18세 이상자로서,

나. 미국 내 전체 세종학당 수강생 또는

다.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미국 내 한국어 학습자(대학생/일반인 포함)

3. 주제 : 한글 또는 한국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

4. 공모 형식 : 참가자별 말하기 동영상 파일 및 Consent and Release Form 제출

* 입문/기초반(2분 이내), 중/고급반(3분 이내)